

01. ② 02. ⑤ 03. ⑤ 04. ③ 05. ④ 06. ④ 07. ③ 08. ④ 09. ③ 10. ③
11. ④ 12. ③ 13. ④ 14. ⑤ 15. ① 16. ② 17. ① 18. ② 19. ⑤ 20. ①

1. 윤리학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응용 윤리학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기술 윤리학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에는 응용 윤리학의 입장에서 기술 윤리학을 평가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응용 윤리학에서는 도덕적 관습이나 풍습 등을 경험적으로 조사하여 기술할 것을 강조하는 기술 윤리학이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 판단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기술 윤리학은 도덕 문제를 도덕 이론과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 ③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은 메타 윤리학에서 강조한다.
- ④ 기술 윤리학은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할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
- ⑤ 기술 윤리학은 도덕적 관습에 관한 경험적 서술이 갖는 의의를 중시한다.

2. 칸트 윤리학의 현실 문제 적용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칸트의 주장이다. 그는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사례에서 A는 최근 겪은 슬픈 일로 인해 봉사 활동에 계속 참여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칸트는 동정심과 같은 감정이 아니라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따른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덕 윤리에서 제시할 조언이다. 칸트는 공동체의 전통과 덕목에 부합하는 행위가 모두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②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본다.
- ③ 칸트는 조건적인 명령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명령인 정언명령에 따른 행위를 강조한다.
- ④ 칸트는 사회적으로 칭찬과 인정을 받은 행위가 모두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3. 성과 사랑의 관계에 대한 입장 파악

정답 해설 : 성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 갑은 보수주의, 을은 중도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갑은 성이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을 전제로 할 때만 도덕적이라고 보지만, 을은 사랑이 동반된 성적 관계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갑, 을은 모두 성적 관계는 사랑이 전제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갑은 성적 관계는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라고 본다.
- ② 갑은 쾌락적인 가치보다 생식적인 가치를 중시한다.
- ③ 을은 결혼을 전제하지 않아도 사랑이 전제된 성적 관계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 ④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을은 상호 동의가 전제되어도 사랑이 결여된 성적 관계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4. 유교의 효(孝)의 의미 파악

정답 해설 : (가)는 유교 사상이다. 유교 사상에서는 군자를 이상적 인간상으로 제시한다. (나)의 ㉠은 효(孝)이다. 유교에서는 효가 인을 실천하는 출발점이며 모든 행실의 근원[百行之源]이라고 본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정신적 공경보다 물질적 봉양을 우선하는 것은 올바른 효의 자세가 아니다.
- ② 효의 완성은 자신의 이름을 떨쳐 부모를 영광되게 해 드리는 입신양명이다.
- ④ 효의 시작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는 불감훼상이다.
- ⑤ 효는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상례와 제례를 통해 지속된다.

5. 명품 소비와 관련된 윤리 문제 파악

정답 해설 : 칼럼은 명품 소비가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되었으며, 전 계층으로 확산되면서 사람들의 개성을 상실하게 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에는 명품 소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들어가야 한다. 명품 소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려는 욕구를 절제하고 주체적 소비를 해야 한다(ㄱ). 그리고 자신의 경제력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하며(ㄴ), 모방 소비를 지양하고 자신의 개성을 살릴 수 있게 소비해야 한다(ㄷ).

정답 ④

[오답피하기]

ㄴ. 칼럼은 명품 소비 현상이 사회 전 계층으로 확산되어 있다고 본다.

6. 니부어의 사회 윤리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니부어의 주장이다. 니부어는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도덕적일 수 있지만, 사회 집단은 개인보다 이기적 충동을 강하게 표출하게 되므로 비도덕적인 특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는 합리성에 부합하는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니부어는 집단 간 힘의 차이를 정치적 방법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 ② 니부어는 개인과 사회의 도덕적 이상은 절대적 모순 관계가 아니라고 본다.
- ③ 니부어는 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충동을 제어하는 이성의 힘은 약해진다고 본다.
- ⑤ 니부어는 집단 간 관계는 각 집단이 갖는 힘의 비율에 따라 수립된다고 본다.

7. 롤스와 소로의 시민 불복종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롤스, 을은 소로이다. 롤스는 사회적 다수의 정의감이 저항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소로는 개인의 양심이 저항 판단의 최종 근거라고 본다. 소로는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ㄷ). 소로와 롤스는 부정의한 법률이나 정책에 저항하는 시민 불복종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라고 본다(ㄹ).

정답 ③

[오답피하기]

- ㄱ. 롤스는 시민 불복종은 민주 헌법의 의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 ㄴ. 롤스가 주장하는 시민 불복종은 정의의 원칙이 준수되는 사회를 지향한다.

8. 순자와 맹자의 직업 윤리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순자, 을은 맹자이다. 순자는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과 이들을 지도하는 군자의 일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맹자는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과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은 각자 자신의 역할과 직분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맹자는 백성은 향산(恒産)이 없으면 향심(恒心)을 지니기 어렵다고 본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순자는 예에 따라 사회적 분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② 순자는 군자가 도에 정통하면 자신의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맹자는 각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업의 원리를 중시한다.
- ⑤ 순자와 맹자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직분과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조한다.

9. 토론의 핵심 쟁점 파악

정답 해설 : 갑은 환자 치료에 있어서 의사의 온정적 간섭을 긍정하지만, 을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토론의 핵심 쟁점은 치료에 있어서 환자의 자율성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②, ④, ⑤ 갑, 을이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므로 토론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없다.

10. 레오폴드, 레건, 테일러의 환경 윤리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레오폴드, 을은 레건, 병은 테일러이다. 레건과 테일러는 레오폴드와 달리 개체론의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이들은 생태계의 선이 개체의 선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본다(ㄷ). 레오폴드, 레건, 테일러는 모두 인간 상호 간의 의무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ㄹ).

정답 ③

[오답피하기]

- ㄱ. 레오폴드와 테일러가 긍정할 내용이므로 오답이다.
- ㄴ. 레오폴드와 레건, 테일러가 모두 긍정할 내용이므로 오답이다.

11. 통일에 대한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가)는 남북한 언어와 문화의 이질화 문제 해소, 이산가족의 만남, 북한 주민의 보편적 삶의 권리 실현을 중시하지만, (나)는 분단에 따른 각종 불안 요인을 극복하여 경제 발전의 안정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은 ‘문화적 통합 측면을 강조하는 정도’(X)는 낮고, ‘경제적 실리 측면을 강조하는 정도’(Y)는 높으며, ‘인도주의적 측면을 강조하는 정도’(Z)는 낮다. 따라서 ㉔이 옳은 위치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②, ③, ⑤ (가)에 비해 (나)가 지닌 상대적 특징이라고 할 수 없다.

12. 롤스와 싱어의 해외 원조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롤스, 을은 싱어이다.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원조의 목적이라고 본다. 싱어는 인류 전체의 공리 증진이라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원조를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싱어는 질서 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도 절대 빈곤의 상태에 있다면 원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며(ㄷ), 이익 평등 고려의 원리에 따라 원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ㄹ). **정답 ③**

[오답피하기]

ㄱ, ㄴ. 롤스는 해외 원조가 국가 간 복지 수준을 조정하거나 자원을 재분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13. 사이버 공간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사이버 공간이 여러 자아를 실험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자유롭게 만들고 해체하면서 새로운 자아를 형성할 수 있게 하므로 사이버 공간의 긍정적 측면을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제시문은 사이버 공간이 실제 공간의 연장이면서 새로운 공간이라고 본다.
- ② 실명화를 통해서도 여러 자아를 실험하거나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기 어렵다.
- ③ 제시문은 사이버 공간이 도덕적 책임을 둔감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음을 인정한다.
- ⑤ 사이버 공간의 다중 자아를 금지하면 새로운 자아를 형성할 수 없다.

14. 예술과 도덕에 관한 도덕주의 입장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주희의 주장으로 예술에 대한 도덕주의의 입장을 담고 있다. 도덕주의는 예술이 윤리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ㄴ), 예술은 그 사회의 도덕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고 본다(ㄷ). 그리고 주희는 사악한 시(詩)도 자신을 고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ㄹ).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ㄱ. 도덕주의는 예술이 도덕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15. 갈통과 왈처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갈통, 을은 왈처이다. 갈통은 전쟁, 테러 등 신체에 직접 해를 가하는 직접적·물리적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사라진 적극적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갈통은 폭력적인 수단으로 평화를 실현하는 데 반대한다. 왈처는 전쟁이 때로는 정당화될 수 있지만, 전쟁의 수행은 언제나 도덕적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국가 안보는 전쟁과 같은 폭력이 제거된 것으로 소극적 평화에 해당한다.
- ③ 왈처는 악을 바로잡기 위한 정의로운 전쟁은 수행될 수 있다고 본다.
- ④ 왈처는 타국의 극심한 인권 문제에 대해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본다.
- ⑤ 왈처는 모든 전쟁은 도덕적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16.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면 기업의 이윤 추구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에도 유리하다고 간주하는 보궐이다. 을은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기업 이익의 극대화라고 주장하는 프리드먼이다. 갑, 을은 모두 기업은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ㄱ), 공익 증진이 아니라 이윤 극대화를 본질적 목적으로 삼는다고 본다(ㄷ).

정답 ②

[오답피하기]

- ㄴ. 갑, 을이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ㄷ. 갑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17. 롤스와 노직의 정의에 대한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롤스, 을은 노직이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자연적 우연성이나 사회적 우연성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노직은 각 개인은 정당한 소유물에 대해 절대적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 롤스는 천부적 재능의 불균등한 분포 자체를 부정의하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롤스는 사회의 기본 구조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을 정의의 일차적 주제로 본다.
- ③ 노직은 최초 취득이 정당해도 부정의한 이전이 이루어졌다면 교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④ 노직은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정의 원칙에 반대한다.
- ⑤ 롤스와 노직은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명분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본다.

18. 장자의 죽음관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장자의 주장이다. 장자는 삶과 죽음을 기(氣)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으로 보면서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으로 이해한다. 장자는 삶에 집착하지 않고 도(道)를 따라 살아갈 것을 강조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불교의 입장이다.
- ③ 장자는 내세의 행복을 위해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 ④ 장자는 인의(仁義)에 따르는 삶을 강조하지 않는다.
- ⑤ 장자는 삶과 죽음은 차별이 없으므로 죽음 앞에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19. 형벌에 대한 칸트, 루소, 베카리아의 입장 파악

정답 해설 : 갑은 칸트, 을은 루소, 병은 베카리아이다. 칸트는 형벌의 본질은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는 것이라고 본다. 루소는 사회 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범죄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본다. 베카리아는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성이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본다. 칸트는 베카리아와 달리 형벌이 공리 증진의 수단으로 가해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루소는 국가가 사형을 집행할 권리를 지닌다고 본다.
- ② 칸트는 살인자를 사형시키는 것이 그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본다.
- ③ 베카리아는 형벌의 정의는 사회 계약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칸트는 처벌의 목적은 교화가 아니라 응보에 있다고 본다.

20. 엘리아데의 성과 속의 입장 파악

정답 해설 : 강연자는 엘리아데이다. 엘리아데는 종교라는 현상을 근원적으로 일상 속에서 성스러움과의 만남으로 파악하였다. 그는 성과 속이 분리되어 있거나 단절되어 있지 않으며, 결국 일상적인 삶 자체가 언제든지 성스러움의 드러남, 즉 성현(聖顯)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엘리아데는 성스러움이 현현(顯現)한 사물은 전혀 다른 것이 되지만 그 후에도 사물임이 변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엘리아데는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이 단절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 ③ 엘리아데는 세속의 세계에서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엘리아데는 성스러움의 현현은 세속적인 삶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 ⑤ 엘리아데는 세속의 세계를 성스럽게 만드는 신(神)이 존재한다고 본다.